문근영 기증 해남 땅끝 아동센터 준공

영화배우 문근영양의 도움으로 새롭게 문을 연 해남 땅끝 아동센터. /해남=박정옥기자 jopark@kwangju.co.kr

"참 착한 근영누나 고마워요"

땅끝마을 아이들 "새 보금자리 너무 행복"

영화배우 문근영양이 부지 구입과 건물 신축비 전액을 지원해 화제가 됐던 해남 땅끝 아동센터가 3개월여의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다. 〈본보 2007년 1월26일자 1면 보도〉

땅끝 아동센터는 지난해 10월 거주하던 집이 매각되면서 40여 명의 초·중·고생들이 갈 곳을 잃게 됐으나 광주일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근영양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대지 1천653㎡에 건평 165㎡ 규모의 아동센터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3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사무실과 컴퓨터실, 학습실을 포함해 남학생방, 여학생방으로 꾸며졌으며 4개의 화장실도 갖췄다.

에어컨·대형 세탁기·전기오븐 등은 서울에 있는 모 회사가 기증했으며, 근영양 어머니(광주시청 5급 공무원)도 42인치 대형 벽걸이 TV를 선물했다.

또 '아침운동본부'에서 도서 100권을 기증했으며 송지중 교사들이 책장을 마련해 독서 공간도 생겼다.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배요섭 목사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환경이 좋아져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일찍 귀가하고 있다"면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보금자리가 준공되면서 식구도 늘어났다. 미취학 아동들에서부터 고등학생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발걸음도 잦아졌다. 숙식을 이곳에서 해결하는 아이들도 20명이나 된다.

이들의 바람은 한가지. 그것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준 문근영양을 만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곽태양(17·송지중 1년)군은 "무엇보다 아침에 화장실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좋다"면서 "근영이 누나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장마철 운전 '조심'

교통사고 사망률 33% 증가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24일 오전 장흥군 유치면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마티즈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안모(여·43)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같은 날 오후 함평군 월야면의 한 복분자 밭에서 경운기를 몰던 박모(68)씨가 후진 중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경운기 핸들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

- ▲앞유리 기름때 제거
- ▲물웅덩이 통과 후 짧게 2~3회 브레이크밟기
- ▲전조등 켜기
- ▲타이어 공기압 10% 높이기
- ▲대형차 뒤따르지 않기

이처럼 장마철에는 불량한 시계(視界)와 미끄러운 빗길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장마철 교통사고 사망률이 평소보다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맑은 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인데 반해 비가 내리는 날엔 4.0명이나 된 것이다. 사상자의 경우도 비가 내리는 날이 건당 1.79명으로 맑은 날 보다 9% 늘어났다.

빗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와 지면과의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젖은 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40~50%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정지거리도 저속(40㎞)에서는 24~25m로 비슷하지만, 고속(80㎞)에서는 ▲마른 노면 60m ▲젖은 노면 84m로 40%가 더 길어진다.

수막현상(水膜·hydroplaning)도 주된 사고의 원인. 차량이 물 위를 달리는 수상스키처럼 변해 방향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장마철에는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저하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물웅덩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안현주기자 a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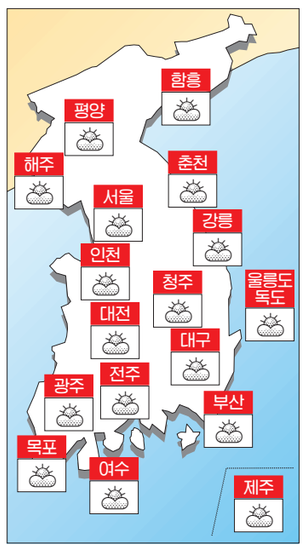
구름 가득

6월 26일 (음 5월 12일) 날씨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되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0~28℃
목 포	구름 많음	20~26℃
여 수	구름 많음	20~25℃
완 도	구름 많음	20~27℃
구 례	구름 많음	21~29℃
해 남	구름 많음	20~27℃
장 흥	구름 많음	19~27℃
고 흥	구름 많음	20~26℃
순 천	구름 많음	20~29℃
영 광	구름 많음	20~27℃
진 도	구름 많음	20~27℃
전 주	구름 많음	20~29℃
남 원	구름 많음	19~29℃
흑산도	구름 많음	17~24℃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 10:14 04:12 썰물 〈 23:34 16:12
여 수 밀물 〈 05:34 18:43 썰물 〈 11:54 --:--

▲해뜸 05:19 ▲해짐 19:51 ▲달뜸 16:04 ▲달짐 01: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수)	28(목)	29(금)	30(토)	7/1(일)	2(월)
날 씨						
최저/최고	21/27	22/25	21/28	20/30	21/26	22/25

가산점 0.3점 때문에…

"기준 애매해 임용고사 탈락" 광주 교사 지망생 소송 제기

광주의 한 교사 지망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애매한 가산점 적용기준 때문에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남대 사범대를 조기졸업한 A(여·23)씨가 최근 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행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지역 사범대 졸업생에 한해 전체 졸업생의 5% 이내 성적일 때 1등급 가산점 20점을 주고 있는데, 자신은 지난해 '후기 졸업'을 하다 보니 전체 졸업생 수가 13명 밖에 되지 않아 졸업성적이 1등이면서도 백분율상 5%가 아닌 7.7%에 그쳐 2등급 가산점인 19.7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전기 13명, 후기 14명 등 모두 27명이 졸업한 만큼 27명 대비 석차를 적용했다면 5% 이내에 들어 1등급 가산점 20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모집정원 9명의 1.3배인 12명을 뽑는 1차 시험 탈락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했던 A씨는 0.3점을 더 받아 1차 최하위 합격자보다 점수가 0.13점 높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행정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에 A씨가 승소한다면 1차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사정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불륜 경찰관 '품위 손상' 해임 정당

前 신안지역 파출소장 패소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안군 한 섬의 파출소장이었던 김모씨는 지난 2002년 3월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씨를 만나 2003년 1월 성관계를 가진 뒤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 등 2년10개월간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씨는 2005년 10월 "헤어지자"는 자신의 요구에 항의하는 이씨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이씨가 결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진정을 당했다. 김씨는 또 2004년 3월 노래연습장에서 여자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합석해 유흥을 즐기는가 하면, 주민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1점에 100~200원짜리 내기 고스톱을 치기도 했다.

김씨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 통보를 받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김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이유 로비' 영장 기각 檢-法 갈등

"로또 영장" vs "구체적 사유 대라"

제이유 그룹 관련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압수수색· 체포·금융계좌 추적 영장 등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특수1·2·3부장과 금융조세조사1·2부장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과 관련해 기준을 찾을 수 없고 수사전문가인 검사로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의 영장 처리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 "로또 영장인가"=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구속영장을 넣고 법원만 쳐다보는 꼴이 마치 로또 하는 심정이다"고 푸념했다. 영장 발부·기각에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조차 없어 담당 검사마저 오늘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까 기다리는 처지라는 것이다.

구속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결정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고 검사들은 불평한다.

◇ "구체적 사유 있어야 발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라고 주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은 이 것인데 집에 있는 것을 모두 들고 오겠다거나, 해당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부분을 요구하는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에 한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개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경쟁률 6.3 대 1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6.3대 1로 나타났다.

25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문학원 PMS에 따르면 10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난 22일 수시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26명 모집에 1천42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3대 1에 달했다.

일반전형은 포천중문의대가 18명 모집에 183명이 지원해 10.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북대 9.6대 1, 가천의과학대 7.8대 1 등의 순이었다. 특별전형은 건국대가 2명 모집에 14명이 몰려 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케이블카 와이어 끊어져 작업인부 5명 사상

25일 오후 1시10분께 경남 통영시 도남동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하부역사 내에서 캐빈(승객용 객실) 철제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5명 가운데 장모(48)씨 1명이 와이어에 맞아 숨지고 김모(55)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하부역사에서 캐빈을 달고 운행하는 철제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기는 작업을 하다 굵기 18㎜가량의 보조 철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작업인부들을 덮쳐 일어났다. /연합뉴스

마 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 ·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 · 중 · 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 · 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 · 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더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 · 중등학원, 태권도도장, 각 · 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경찰청인증 공인자격. 10월 14일 확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하거나 사고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집행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일부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함)돼 신규 고용창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 · 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서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행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마무리 적중 문제풀이 특강 실시(광주)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상담문의/(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 경찰청
- 시험주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 교통사고감정교육원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 www.dumept.co.kr
두 메 김 치 ㈜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